

原油價單一化와

우리나라의 影響

(政府側 立場)



金 東 源

(動資部油政課·行政事務官)

I. 최근의 世界原油市場 動向

1. 需給狀況

78년말의 이란事態로 말미암은 第2次 石油波動은 전세계 經濟에 막대한 衝擊을 가져온 바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均衡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世界의 原油需給狀況은 이란이 革命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어 감으로써 原油의 生産 및 輸出이 격감되자 심각한 供給不足事態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危機狀況下에서 各國은 原油購買러시를 일으킴으로 해서 物量不足事態는 한층 더 어려운 狀況으로 加重되었던 것이다. 특히 先進諸國은 이러한 物量不足狀況下에서 自國의 所要量 外에 備蓄物量까지도 확보하려 함으로써 공급부족 상태를 惡化시켰으며, 일부는 投機를 위하여 原油를 買占함으로써, 各産油國은 적절한 在庫 및 生産을 조정함으로써 自國의 利益을 極大化시키려 하였다.

물론 石油라는 資源을 武器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73年 中東戰爭이후 産油國들이 自國이 생산하고 있는 石油가 有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事實을 인식하기 시작한 後였으며, 그 前까지는 世界原油輸出市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OPEC도 막강한 威勢를 가졌던 메이지의 掌握下에 놓여 있었다. 메이지는 의식적으로 生産량을 過剩狀態로 유지함으로써 OPEC의 生産카르텔의인 성격을 견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메이지時代는 73年 中東戰爭의 結果로 OPEC의 地位가 갑자기 浮上함으로써 終幕을 고하고 말았다.

아름든 世界의 原油需給狀況은 제2차 石油波動

을 거치면서 또다시 惡化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80年末까지 계속되었으나, 이와같은 2次에 걸친 石油波動은 世界의 景氣침체를 초래함으로써 石油多消費國家의 石油需要를 대폭 감축시키게 되었다. 여기에 世界各國은 그간의 經驗에 비추어 石油소비 절약을 위한 對策을 持續的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原油의 需要는 크게 위축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代替에너지 開發을 촉진시키는등 需要節減노력으로 需給狀況은 80年末을 고비로 크게 好轉되었다.

그밖에 80年 9月의 이란·이라크戰 발발에 따른 兩國의 原油輸出減少가 전쟁의 長期化 및 교착상태 유지로 또다시 增加됨으로써 供給不足를 緩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 점도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

이와같은 需要 및 供給上的 諸要因에 의하여 世界의 原油市場은 81年初부터 상당한 供給過剩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總200~300萬B/D의 物량이 남아돌게 되었다. 이처럼 世界原油市場이 供給과잉현상을 보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온건 정책 때문이었다. 사우디는 일부 強硬派産油國의 高原油價政策을 沮止하기 위하여 平時 生産능력 850萬B/D를 1,050萬B/D수준까지 增産함으로써 結果적으로 強硬派國家의 價格引上노력을 억제해왔던 것이다.

지난 81年 5月의 OPEC總會에서도 이러한 原油供給過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強硬派 産油國과 隱健派 産油國의 理解가 일치되지 못함으로써 決裂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2. 價格狀況

제 2 차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세계의 原油價格은 急騰을 계속함과 동시에 油價體系上 多元化라는 특징을 추가하게 되었다. 즉 78年末 제 2 차 石油波動이 일어나기 直前의 原油價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정도 質에 따른 合理的인 가격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石油波動이 시작되었던 79년 이후에는 物量의 절대부족 사태를 반영하여 各産油國들이 原油의 質에 상관없이 各自 任意의 가격을 決定施行함으로써 原油價의 多元化 現象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表 1> 78年末의 各國 原油價 比較

國 別	油 種 別	API°	價格 \$/B
사우디아라비아	Light	34°	12.7038
	Medium	31°	12.3225
	Heavy	27°	12.0156
쿠웨이트		31°	12.27
이란	Heavy	31°	12.49
	Light	34°	12.81
카프지		31°	11.884

<表 2> 第 2 次 石油波動期間中の 原油價 變動推移(公式價格 基準) 單位: \$/B

油種別	'78末	'79末	'80末	'81.3月
A-L	12.7038	24.00	32.00	32.00
Kuwait	12.27	27.98	31.50	35.50
I-H	12.49	25.50	36.00	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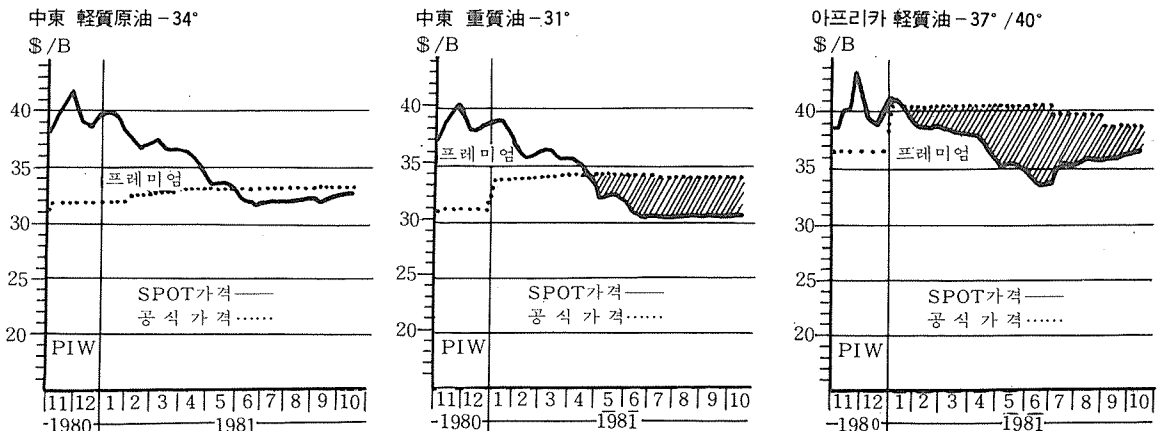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한 原油價變動 狀況下에서도 사우디는 他産油國에 비해 비교적 낮은 引上을 실시한데 反해서 其他産油國은 상대적으

로 高率의 引上을 실시함으로써 78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質의 차이에 따른 合理的인 價格體系가 붕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OPEC의 價格統制能力의 喪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原油價의 多元化體制는 내용상으로 크게 보아 三元化라고 볼 수 있는데, 온전파인 사우디의 32\$/B수준과 강경파인 일부 北아프리카 産油國의 40\$/B수준, 그리고 其他産油國의 34~36\$/B 수준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32\$/B이라는 낮은 수준의 原油價格을 유지하였던 것은 原油價의 過多한 引上이 결과적으로 消費國들의 製品價格을 引上시킴으로써 自國의 輸入物資의 價格引上을 가져오게 되어 原油價 引上의 效果가 없어지게 될 뿐만아니라, 消費國들의 脫石油政策을 촉진시킴으로써 石油의 소비량을 줄여 장차의 石油販賣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原油價多元化 體系下에서 더구나 物量의 공급이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必然적으로 소비국들이 低價原油를 選好함과 동시에 高價原油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81年 上半期中 物量需給이 好轉됨으로써 高價原油價를 주장하던 일부 強硬派産油國들은 自國産原油의 販賣不振으로 말미암아 原油價를 引下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價움직임도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公式價格을 밀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일부 産油國들은 原油公式價格 引下를 実行에 옮기는 동시에 原油價 單一化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81年中 主要 産油國의 原油

<表 3>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價格變動 推移



價調整 내역을 보면 (表4)와 같다.

〈表 4〉 81년중 各國의 原油價格 變動推移 內訳
(公式價格 基準) 單位: \$/B

油 種 別	81. 3月	81. 9月	備 考
나이지리아	40.00	36.00	프리미엄인하 (3\$/B→1\$/B)
말레이시아	40.60	37.90	
쿠웨이트	38.50	36.50	
인도네시아	37.00	35.50	

한편 原油價 單一化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81年 5월에 OPEC總회가 개최되어 最大産油國인 사우디의 減産을 통한 需給安定을 시도하였으나 原油價 單一化 수준에 見解가 대립됨으로써 決裂되었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이당시 強硬派 産油國은 사우디의 原油價를 36\$/B수준으로 引上하는 대신 自國産原油價도 이 수준으로 引下함으로써 原油價 單一化를 이룩하려고 하였으나 사우디는 34\$/B수준을 주장함으로써 妥協點을 찾지 못한 채 最近까지 계속 多元化體制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II. 第61次 OPEC 特別會議結果

1. 會議結果 合意內容

이와같은 背景下에서 지난 81年 10月 29日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第61次 OPEC 特別會議가 개최되었으며, 同會議는 하루만에 폐막성명을 내고 閉會되었다. 여기에서 결정된 주요내용은 OPEC基準原油價인 사우디輕質原油價格을 34\$/B로 引上하되 其他産油國의 原油價格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油質 및 地理的위치에 따라 합리적인 價格差異를 두고, 이의 최고한도를 38\$/B로 許容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러한 原油價格의 變動을 위한 發效日時は 원칙적으로 81年 11月 1日부터 하되 다만 引上되는 原油의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사우디原油에 대해서는 그 遡及引上時期를 81年 8月 1日로 할 것이냐, 또는 81年 10月 1日로 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나 最近 報道에 따르면 81年 10月 1日로 遡及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OPEC總會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原油價格은 82年末까지 凍結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別다른 사정이 없는한 來年末까지는 더이상의 原

油價格引上이 없을 것임을 明白히 하였다.

이와같은 OPEC의 결정내용은 결국은 온건파인 사우디의 主張이 관철된 것으로서 현재의 세계 原油 需給上的 공급과잉 현상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 實質的인 의미는 原油價單一化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으며, 크기는 이번 OPEC會議의 결정은 제 2차 石油波動이 終了되었다는 하나의 宣言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會議結果에 따른 原油價格동향

이와같이 제61차 OPEC會議에서 原油價單一化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各産油國別로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아직 自國産 原油價格에 대한 공식발표가 없어 精確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사우디의 2\$/B(輕質油기준) 引上 및 他産油國의 油質에 따른 價格조정으로 OPEC의 平均原油가격은 中津 34.06\$/B수준에서 약 35~70¢/B가 引上된 34.41~34.76\$/B수준이 될 것으로 專門家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現物市場에서도 81年 7月現在 31.50\$/B까지 下落하였던 사우디輕質油의 價格이 最近에는 32\$/B수준에서 補合勢를 유지하다가 OPEC會議 개최가 확정된 10月 20日頃부터 上昇하여 현재는 33.60\$/B수준에서 거대되고 있다. 最近까지 原油價格調整이 확인된 國家의 原油價變動內訳은〈表 5〉와 같다.

〈表 5〉 原油價 單一化 合意後의
原油價 調整 內容 單位: \$/B

國 別	油 種 別	從前價格	調整價格	備 考
사우디아라비아	Light	32.00	34.00	프리미엄 별도
알 제 리	Es sider	40.00	37.50	
쿠 웨 이 트		35.50	33.00	
이 란	Light	37.00	34.00	
인 도 베 시 아	Handil	35.30	35.30	
에 파 도 르	Oriente	32.00	34.25	
멕 시 코	Isthmus	34.00	35.00	

3. 向後의 世界原油需給 전망

제61차 OPEC特別會議時의 합의사항중에는 各産油國의 減産問題에 관한 사항은 없었으나 사우디는 産油量을 한때 1,050B/D수준까지 올린 일도 있었

지만 최근들어서는 930만B/D수준을 유지하다가 81年 11月 1일부터 다시 850만B/D수준으로 낮춤으로써 強硬派産油國의 價格引下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우디의 減産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高價의 原油價를 유지해옴으로써 販賣不振으로 産油量을 減少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일부 産油國들이 産油量을 增加시키게 될 것이므로, 당분간은 物量需給上의 均衡상태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 專門家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IEA등에서는 80年代中半이후 또다시 과거와 같은 石油波動이 닥쳐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의 中東情勢가 상당한 不安要因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原油를 自体消費하고 일부 剩餘原油를 輸出하고 있는 蘇聯이 80年代中半이후에는 原油輸入國으로 轉落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름든 이번 제61차 OPEC會議의 폐막으로 제2차 石油波動은 종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또다시 제3의 石油波動이 予告되고 있는 등 向後의 世界原油需給 전망은 극히 不透明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原油價單一化에 따른 우리나라의 影響

1. 国内原油需給上의 문제

81年中의 国内 原油需要는 53만B/D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의 実績을 감안 할 때에는 50만B/D수준을 간신히 웃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需要의 減少는 세계의 景氣回復 지연에 따른 国内景氣의 不振및 그간의 石油소비 절약운동의 결과에 따른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러나 81年 10月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原油는 57萬 6千B/D수준에 이름으로써 81年中의 原油需給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判斷될 뿐만아니라 81年末에는 상당한 수준의 在庫를 保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原油價單一化에 따른 사우디産油量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所要原油確保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限 82年末까지는 대체로 無難할 것으로 예측되며, 오히려 이러한 世界原油市場의 安定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原油導入先의 多邊化 및 備蓄推進등 原油의 安定導入 基盤構築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中長期的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제3차 石油波動을 對備하는데 보다 全力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바, 石油依存度의 減縮努力 및 原油의 安定導入體制 확립, 備蓄의 적극추진, 国内外的 油田開發추진등 위기극복을 위한 体系的이고도 汎國民的인 對策을 整備해야 할 것이다.

2. 国内油價에의 影響

石油價가 單一化됨에 따라서 国内油價에 어느 정도의 影響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問題는 단순히 計算決定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原油價多元化 體制下에서 原油價를 平準化하는 制度를 採択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安定基金制度를 運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油價制度의 改編適用문제에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現行制度의 概要를 검토해 보고, 다음에 制度改編의 문제를 檢討해야 할 것이다.

(1) 現行 油價管理制度의 概要

현재 우리나라는 石油類製品의 價格을 政社가 統制하는 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各精油社에 따라서 導入 하고있는 原油價格이나 精製費가 각각 相異하지만, 国内油價의 安定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政社가 各精油社의 原價를 算定, 檢證하여 이를 토대로 国内油價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油價管理制度의 특징은 原油價平準化制度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즉 上述한 바와 같이 제2차 石油波動이후 多元化된 原油價現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政社가 도입하는 原油價格이 各各相異함에도 政社가 介入하여 이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81年 4月 19일에 조정되어 시행중인 現行 油價制度의 내용을 보면 첫째, 油價에 반영하는 基準原油價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低價로 도입하는 湖南精油(株)의 原油導入價格인 31.44 \$/B로 하였다. 湖南精油는 도입 原油를 全量 사우디에서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油價反映 基準原油價는 사실상 사우디의 平均 原油價인 셈이다. 둘째, 基準原油價인 31.44 \$/B보다 高價로 도입하는 原油에 대하여는 그 高價差額을 別途의 安定基金에서 補填함으로써 各精油社는 31.44 \$/B로 原油를 도입한 결과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安定基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되

는 모든 原油에 一律的으로 3.50\$/B씩 安定基金을 徵收하고 있다. 그밖에 精製費는 各精油社의 平均정제비를 油價에 반영함으로써 精製費部門에서의 各社의 經營合理化를 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2) 現行 油價管理制度下에서의 油價引上要因

이와같은 油價管理制度下에서는 사우디 原油價가 基準原油價로 됨으로, 이번 原油價單一化에 따라 사우디 原油價가 輕質油基準으로 32\$/B에서 34\$/B로 引上되었으며, 사우디 原油의 전체 平均單價는 31.44\$/B에서 33\$/B수준으로 引上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基準原油價인 사우디 原油價의 引上으로 國內油價에는 약 3.7%의 引上要因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번의 사우디 原油價引上에 따른 間接效果외에도 상당한 引上要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간의 換率引上 및 레이전대통령의 달러 貨방어정책에 따른 金利의 引上으로 原油導入時에 사용되는 유전스 利率의 上昇 등 精製費 측면에서의 圧迫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81년 4월 19日 油價引上時 반영했던 換率은 대고객진신환 매도율기준으로 677.80원/\$였으나 최근 690원/\$ 수준까지 上昇하고 있으며, 더우기 현재의 經濟與件으로 보아 앞으로도 상당한 換率上昇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유전스 利率도 年平均 14.5%수준만을 油價에 반영했으나 요즘의 利率은 19%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精油社의 缺損을 가중시키고 있다. <表 6 참조>이같은 정제비의 인상요인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1.5%정도의 引上要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사우디 原油價가 引上됨과 동시에 高價原油價가 引下될 것이므로 安定基金으로 보전해야 할 高價差額支援助要가 줄어들게 되어 현재 3.50\$/B씩 징수하고 있는 安定基金이 引下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까지 引下되어야 할 것인지는 현재의 基金收支狀況 및 各국의 原油價 상황에 따른 高價차액보전소요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各국의 原油價가 완전히 通報되고 있지 않으므로 安定基金所要分은 판단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3) 原油價單一化에 따른 制度의 改編問題

제61차 OPEC會議 결과, 各 產油國은 原油價單一化에 합의를 한 바 있지만 과연 이들이 完全한 單一化를 이룰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즉 사우디 輕質油의 價格이 34\$/B일 때, 예를 들어 쿠웨이트 原油는 어느정도 價格이어야 質의 差異에 따른 完全한 單一化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설혹 이러한 價格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各산유국이 제대로 이런 正當한 價格을 賦課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各국이 原油價單一化에 關係 合의한 바 있으므로 原油價가 單一化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現行 油價管理制度는 基本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制度는 原油價가 多元化되었을 경우 이를 人爲的으로 平準化하는 制度이므로 原油價가 單一化될 경우에는 現行 制度로는 오히려 번잡성만을 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국의 原油價가 公式的으로 발표되어 原油價單一化 여부가 확정될 경우 현재의 原油價平準化 制度는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國內 油價에는 基準原油價로서 國內원유도입평균 價格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앞으로의 對策方向

上述한 바와 같이 國內油價를 결정하는 문제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檢討가 필요하며 언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인가는 여러가지 變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油價는 國民經濟 全盤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의 결정을 綜合的인 經濟運用의 테두리 안에서 國民生活에 주는 苦通을 最少化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表 6> 最近 國內 精油社의 營業實績

(단위: 억원)

구 분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81 上 半 期 (가결산)	△343	△375	20	△289	△21	△1,008
80 實 績	△347	80	△116	△80	△21	△484